

인연을 소중히 하는 곳, 작은공동체

글_ 최카타리나 · 강원심터 대표/수녀

우리 작은공동체(강원심터)를 오늘에 있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작은 물 한 방울이 모여 오늘의 작은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에 새삼스레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기도하며, 이 글을 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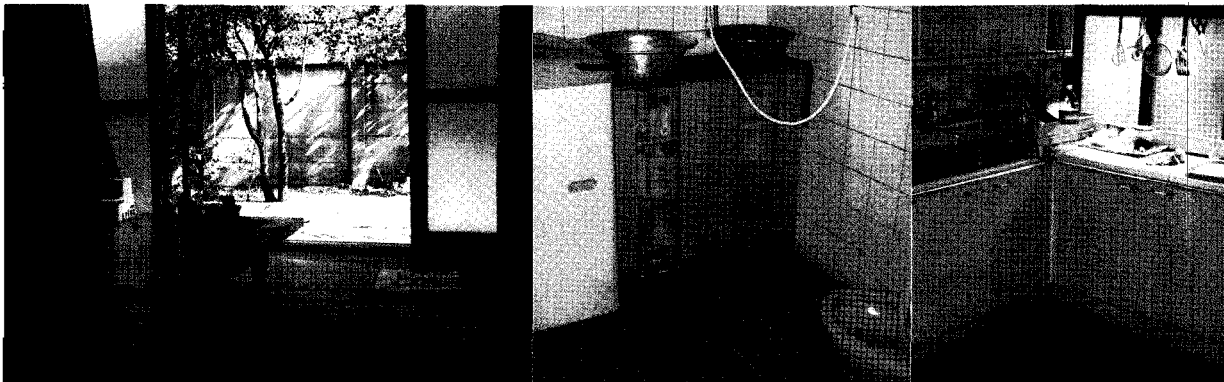
옷깃을 한번 스치는 것도 500겁(생) 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인연은 매우 소중하다. 작은 인연도 먹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섭리와 이그심이 라고 생각한다. 그런 인연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작은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에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

공동체는 자기존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곳

2003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HIV 환자임이 판명되자 재활치료 및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거절당한 ○○○씨에 대한 의뢰가 들어와 ○병원 호스피스 병동 격리호실에 입원시키게 되면서, HIV 환자와 감염인에 대한 사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작은공동체(강원심터)의 시작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심터는 HIV 감염인·환자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곳, 사랑을 배우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곳, 자신의 소중함과 존재함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으며 자립할 토대를 만드는 곳이다. 작은공동체는, 가장 가난하고, 묵인들이에게는 해방을, 소경들, 억눌린 이들에게는 자유를, 아픈 이들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 모인 우리 ○○수녀회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 현재 국내의 에이즈 감염인·환



▲ 왼쪽부터 심터 거실, 욕실, 부엌, 감염인의 방

자수는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쉽터는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사회 인식으로 주변 사람 및 가족들,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아 오갈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감염인들에게 어머니 품속과 같은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용기와 건강을 복돋우는 곳**

쉽터에 머물며 생활하는 감염인 대부분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독한 결핵약과 에이즈 치료약을 복용한다.

한 달에 한 번씩 감염내과 교수님의 방문 의료지도를 통해 자신의 상태 체크와 궁금했던 점들을 묻고, 듣고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할지 스스로 습득하도록 격려한다. 알뜰살뜰 고단백 영양가 높은 영양식으로 담당수녀님이 장을 봐주시면 스스로 돌아가면서 식사준비를 하며 집안의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조금의 일상적인 규칙을 정해놓고 서로 돕고 챙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옆에서 격려하여 자연스레 몸과 마

음을 회복하도록 한다. 또한 이곳에 머무는 감염인 대부분은 자립을 위해 HIV/AIDS 환자들을 간병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해주고 있다.

이곳 쉽터의 오○○씨는 수다쟁이 아저씨인데 하루에도 몇 번씩 윗몸일으키기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며, "나 이빠" 이렇게 농담도 하시는데 요새 우울하단다. 관심과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이다. 이○○씨와 장○○씨는 젊은 청년들인데 오늘도 아침부터 바둑판을 펼쳐놓고 오목을 두는데 항상 자기가 이겨도 자기가 져도 이겼다고 우기는 이○○다. 바둑 파트너인 한 사람이 쉬면 그날의 바둑은 둘 수 없어 심심함을 온몸으로 말해주곤 한다.

노○○씨는 말라깽이에 은근히 말이 많은데 주로 "미안해요"가 대부분이다. 그는 빈혈이 심해서 빈혈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새 열심히 빈혈퇴치와 살찌기 위해 배지밀과 삶은 계란을 하루에 2~3개는 드시는데 밥맛이 바뀌었는데 밤에도 삶은 계란을 찾아서서 대단한 빈혈맨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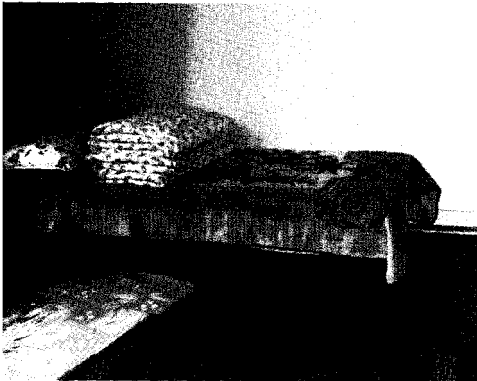
그리고 또 한분의 말라깽이 아저씨 이○○씨가 계시는데 그는 주식인 밥보다 군것질을 좋아하시는데 과자, 피자, 통닭 등을 즐기는 소식가이다. 며칠 전에는 그가 당시 용돈으로 한턱을 내신다고 하고 정말로 피자와 통닭을 시켜주어서 쉽터 식구들 모두가 좋아하며 즐거운 간식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편견과 차별없는 평등함을 추구하는 곳

일주일에 한번 종교교육(교리교육)을 통해 생명과 존재함의 소중함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린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함께 사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나뉠대로 애착도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필요에 의해 쉽터를 찾아와 다른 사람들과 한 식구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네 가정에서도 얼마나 아용다용 하는 일들이 많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분들의 쉽터생활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서로 울고 웃으며 때론 서로 다투며 한편으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까지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 한 모금의 인연도 여지로는 안 된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필연의 뿌리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좌우된다. 편견이 없고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리고 평등함을 추구하는 작은공동체는 열린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사랑이신 하느님과 함께 말이다.



* 쉽터입소 문의 | 02)2675-4111